

만만하게 느껴져
다행이에요



에너지 절약,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런 건 뭔가 대단한, 거창한 활동을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런데 에너지 절약과 전환이 뜻밖에
만만한 활동이네요. 만만해서 하찮다거나
하잘것없다기보다는

‘실천하기가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다’
‘도전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느껴지니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다행이에요.

이제 하나씩하나씩 실천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실천하면 좋을까요?



‘절전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절전소는 ‘쓰지 않아 남는 전력’을 일컫는 말이에요. 낭비하는 전력을 줄이는 일이 곧 절전이죠. 그러려면 에너지에 대해 기본지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학교 졸업하면 공부 끝이라고요? 아니에요. ‘평생교육’ 시대인걸요. 마을마다 있는 교회들이 절전소를 공부하고 실천해서 절전소 모델이 되면 참 좋겠어요. 교회가 쓰는 전기 소비량을 측정해보고 낭비되는 지점을 찾아보는 일부터 하면 돼요. 그건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는 일에 다른 아니죠.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실내적정온도(섭씨 26-28도) 유지하기, 일정 밝기 이상에서는 전등 켜지 않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플러그 뽑아두기(개별 스위치가 달려있는 멀티탭 사용하기) 등이에요. 참 쉽죠? 만만하지요? 할 만하지요?